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한 삶의 전환 체험

임 현 숙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간호사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Lim, Hyun Suk

Nurse,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Purpose: This study was to provid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transition experiences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Method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face-to-face interview from 11 married immigrant women. Their conjugal lives were followed using the hermeneutics phenomenological method developed by van Manen: focusing on the meaning of lived experience. **Results:** The essential theme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lives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were as follows: "entering a strange world filled with chaos and tension where they feel like outsiders", "being pregnant and giving birth in increasingly difficult times", "giving birth to a child, which strengthens them to persevere through painful life experiences", "receiving greater support from their families". **Conclusion:** It contributes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the transition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who undergo pregnancy and childbirth after immigration. On the basis of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would be likely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n appropriate health and medicare systems and the expert network of nursing care for immigrant wom.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Transition, Hermeneutics phenomenological method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화는 자본과 노동력의 국경 없는 이동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인종과 문화, 종교가 개별국가에 자유롭게 흘러들어, 이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주노동이나 결혼 등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 있다. 그 결과 이주자들에 의한 다민족과 다문화 사회가 많은 국가에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새로운 정책적 과제들을 마련하고 제시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0년 3.5%에 불과하던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은 2010년 10.5%로 3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비율은 전체 혼인건수의 8.1%에 달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80%가 도시에, 2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 결혼률은 34%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10명 중 3.4명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가정이 농어촌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주요어: 결혼이주 여성, 전환, 해석학적 현상학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im, Hyun Suk,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249-1 Gyomoon-dong, Guri 471-701, Korea.
Tel: 82-31-560-2500, E-mail: progress0509@hanmail.net

- 이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임.
- This article is a part of doctoral thesi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투고일: 2011년 5월 26일 / 1차심사완료일: 2011년 6월 24일, 2차심사완료일: 2011년 9월 1일 /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1일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특히 농촌 지역 출산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노동시장 및 국가 간 교류영역에 이중 언어 구사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그러나 결혼 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지연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되고,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가 소외되는 등의 사회적 갈등 요인 역시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 여성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문제, 문화적 갈등, 가족관계 부적응, 2세 교육 문제 등은 학문적, 사회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Yoon, 2003). 이중에서도 건강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들에 우선하여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가족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특히 이들 이주자들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여성의 건강은 그 자신 뿐 아니라 2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안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결혼을 앞둔 여성들은 임신·출산에 관련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준비는 여성들에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임신·출산을 비교적 위협하지 않게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결혼이주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기본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언어와 정보, 가족으로부터의 보살핌 부족 등으로 고위험 임신 및 출산, 그 후유증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릴 뿐 아니라 신생아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Han, 2005). 그러므로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과 출산 등 건강관리에 관련한 돌봄은 결혼이주 여성이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생활실태조사와 현황과악 (Seo, 2004; Seol et al., 2005), 인권피해사례 연구 (Han, 2004; Yang, 2005), 부부갈등 (Kim, 2006; Lee, 2008), 결혼만족도 (Pyo, 2004; Kim & Park, 2008; Chung, 2008) 문화적응 (Park, 2007; An, 2008)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간호학적인 관점의 연구나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 여성이 낯선 문화권에서 결혼, 임신, 출산을 통해 한 개체로서의 자기에서 어머니, 아내, 며느리로서, 또한 이 사회의 주체자로서 되어가는 삶의 전환 과정에서 체험하는 의미와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보건 의료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체험의 본질을 향한 집중

1)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

현상학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묻는다는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van Manen, 1990).

본 연구자가 임신·출산기의 결혼이주 여성들을 간호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탐구를 시작하게 된 질문은 ‘간호사가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인가?’이었다. 이 포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결혼이주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결혼이주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결혼이주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결혼이주 여성의 일상생활에 임신과 출산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혼이주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통한 삶의 전환 체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2)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를 명시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현상학적 물음의 의의를 파악하기 전에 그 현상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일반적인 상식과 현존하는 과학적 지식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연구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가정과 선 이해를 밝히고 자료의 수집과정이나 해석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헌의 분석은 자료수집과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판단중지를 위해 연구시작 전에 선 이해와 편견을 기술하였고 연구과정 동안 연구자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인지를 계속 메모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는 다음과 같다.

- 결혼이주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 결혼이주 여성들은 자신의 결혼으로 친정식구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 결혼이주 여성들의 초기 결혼생활은 몹시 불안정 할 것이다.
- 결혼이주 여성은 남편과 시댁식구들과의 적응과정에서 갈등을 느낄 것이다.
-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의 문화와 의사소통장애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결혼이주 여성은 육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 실존적 탐구 단계

1)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연구자의 경험

본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개인적 경험은 간호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로서 건강문제를 가진 구성원을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문화 속에 결혼 여성으로 혼입되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갖게 되고 익숙해진 습관과 문화를 떠나 새로운 생활세계에서 두 문화 사이에 적응하기 위해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모국에서와 다른 역할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되고 임신과 출산은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화시키기도 하지만 생애 새로운 전환기로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도 하였다. 이에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중심으로 경험하는 생활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한국사회로 전환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어원 추적

(1) 이주(移住)

이(移)자는 회의문자로써 禾(화)와 多(다)의 합자니 많은(多) 벼(禾) 모종을 옮겨 심는 것을 뜻하고 또 止(지)자속에 夕(저녁)에서 夕(저녁)으로 시간이 옮겨감(止)을 뜻하며(Yoo, 1973) 주(住)자는 회의문자로써 宀(과) 主(주)의 합자니 그곳에 主人은 바로 그곳에 사는 것을 뜻한다(Yoo, 1973). 따라서 이주(移住)는 ‘딴 곳으로 옮겨 머무름’(The urimal Grand Dictionary, 1992)으로, ‘본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김’(Korea language dictionary, 1999)을 의미한다.

(2) 전환(轉換)

전(轉)자는 회의문자로써 車(차)와 專(전)의 합자니 專

은 손(手)으로, 專(專)이라, 車를 끌어서, 구르는 것을 뜻하며(Yoo, 1973), 환(換)자는 회의문자로써 扌(手)와 奂(환)의 합자니, 손(扌)으로, 명백(奂)하게 주고받음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Yoo, 1973). 따라서 전환(轉換)은 ‘이리저리 바뀌거나 바꿈’(The urimal Grand Dictionary, 1992)과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Korea language dictionary, 1999)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어원을 추적해 본 결과 ‘이주(移住)’에는 이동과 정착의 의미가 ‘전환(轉換)’에는 과정 후 새로워지는 변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문학과 예술로부터의 경험적 묘사

현상학적인 연구에서는 시인, 작가, 예술가, 카메라맨 등의 작품을 즐겨 인용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료 속에서 상황속의 인간으로서 인간존재를 발견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작품 속에서 인간경험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압축하고 초월된 형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van Manen, 1990).

본 연구자는 많은 소설, 시, 예술작품 중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본질적 주제를 제시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해석학적 통찰력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Chae (1999)는 『탁류(하)』에서 임신으로 인한 입덧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살구의 신맛 정도라야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은 울렁거림, 한편으로는 좋아하지도 않던 어떤 특정한 음식이 먹고 싶어 체한 것 같은 속에도 무리할 정도로 먹어대는 모습, 삶이 주는 스트레스에 갖힌 자신보다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아기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임신부와 주변의 반응이 그러진다. 특히 첫 임신의 경우 그 생소함이나 두려움은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것이 생소한 환경에서 첫 임신을 맞게 되는 결혼이주 여성들인 경우 이 소설에서와 같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요구하지도 충족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전략) 맨 처음, 신 것이 많이 먹혔다. 신 것 중에도 살구가, 그 놈이 약간 설익는다 해서 시큼한 놈을 실컷 좀 먹고 싶었는데, 철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나쓰미강을 사다가는 이빨이 뼈뺄뻘하도록 흡싷 먹었다. 한 번은, 여느 때는 즐겨하지도 않는 두부가 금시로 먹고 싶어서 식모를 시켜 함 목 열모를 사다가는, 일변 철여다가

기름으로 부치면서 집어먹으면서 한 것이 두부 열모를 다 먹어냈다. 식모가 그걸 보더니 빈들빈들, “아씨, 애기서시나 배유?”하는 것을, 새수빠진 소리 작작하라고 지전을 해주었다. 이 허천 들린 것같이 음식 먹고 싶은 증세가 지나고 나더니, 이번에는 입덧이 나서, 구역질이 자꾸만 넘어오고, 가슴이 체한 것처럼 거북하기 시작했다. 밥맛은 푹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도 여름의 더위에 시달려 쇠약해진 몸이 더욱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휘이휘 휘둘렀다 (후략).

한편 『아시아계 한국인들 코시안리 6』 (Ha, 2007)에서는 언어의 미숙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손짓, 몸짓으로 단순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부부는 아이의 출생과 미래에 대해서도 아내는 혼혈인으로서 받을 차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남편은 혼혈인이지만 가문을 이어갈 자손이라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남십자성을 찾으며 모국을 그리워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북극성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삶의 이정표를 한국으로 돌려세우고자 하는 남편의 심정이 표현되어있는데 결혼 이후 아내가 온전한 한국인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이 들어 사내가 맞이한 아내/아내는 스물한 살, 친정은 머나먼 베트남/혼인한 지 일 년이 안 된 부부는/아침엔 눈짓으로 식사할 때 알리고/낮엔 손짓으로 밭에 나갈 채비하게 하고/저녁엔 몸짓으로 쉴 자리 가리켰다/머지않아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아내가 부른 부둥켜안고 있으면/남편이 쳐다보고 웃었다/첫아이 낳아도 혼혈이라는 것/둘째아이 낳아도 혼혈이라는 것/아내는 생각하지 않았고/개들이 농토의 주인이라고/개들이 가문의 후손이라고/사내는 생각하였다/밤 깊으면 혼자 마당에 나와 서서/아내가 남십자성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면/따라 나온 사내가 북극성 찾아서 보여준 뒤/반대로 돌려세워 남쪽하늘 향하게 했다/나이 들어 아내 맞이한 사내/사내는 마흔 두 살, 처가는 머나먼 베트남/

Kim (1992)는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에서 외국인과 결혼해 모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맛의 변화에 적응하기 전 임신·출산의 시기를 겪으면서 고국의 음식이 간절했음에도 먹을 수 없었던 상황이 회의감까지 갖게 만들었으며 고국을 떠난 낯선 땅에서의 출산을 겪은 후 고국을 그리워함을 표현하고 있다.

(전략)입덧이 점점 심해져갔다. 나는 자리에 누워 천장이 빙빙

도는 현기증을 느꼈다. 토마스는 신 과일 아프리카 과일을 사다 날랐지만 구역질은 멈추지 않았다. ‘두부찌개 한 번 먹어봤으면...’ 그 때 내 최고의 소원이었다. 그 당시 뮌헨에서는 라면 한 개 구할 길이 없었다. 전철을 타면 노리끼리한 치즈 냄새가 독일 사람에게서 났다. 그 냄새는 그들이 뿌린 향수 냄새와 범벅이 되어 내 입덧을 더 심하게 했다. 아무도 없는 오후. 나는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이 무슨 전생애 죄를 지어 이 낯선 땅에서 벌을 받게 되었는가.’ 한탄하며 하염없이 울었다. 울었다기보다 울어 젖혔다. 그 끝없는 눈물줄기를 타고 입덧이 좀 멎는 듯했다. 말(언어)의 맛을 차단당하고 입맛 또한 끊어져버리고, 우리들의 냄새를 흘려버린 한 동양의 동물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 짙은 회의에 휩싸였다.(중략) 아기를 낳은 후 먹는 푸짐한 미역국이 열 달의 고달픔을 삭가져주는 건데, 병원에서 주는 것은 고작 케이크, 국수, 고기 등 당연히 유럽식 식단이었다 그 유럽식 음식이 침대 옆에 놓일 때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씌고 울었다. 뜨끈한 뚝배기에 담긴 미역국 때문에 그리고 늘 산바라지를 하던 친정어머니가 그리워 이불 속에서 짹짹 울었다. 그가 청개구리 같은 과일을 손에 들고 와서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나는 그때 고개를 저으며 미역국 때문에 운다고 했더니 퇴원하면 자신이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약속했다(후략).

4) 연구참여자의 경험적 진술

(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Morse와 Field (1995)가 제시한 적절성과 충분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고, 임의표출과 눈덩이 굴리기 표출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주제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K시에 소재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외래 및 병실에서 산전관리, 분만, 혹은 산후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 여성과 소아청소년과에 입원중인 환자의 외국인 어머니 중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한 여성으로서 이들 중에서 임신, 출산, 결혼, 이주 경험에 대하여 적합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를 이해하고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였다. 충분성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경험의 의미와 주제에 대하여 더 이상의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자료수집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참여자는 첫 번째 선정한 참여자의 소개를 받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 여성은 11명으로 출신 국적은 베트남, 일본, 필리핀이 각각 3명, 중국 1명, 태국 1명이었다. 연령분포는 40~49세 5명, 30~39세 5명, 20~29세 1명

이었으며 부부의 연령 차이는 6~22세였다. 자녀는 1~4명을 두었으며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3~12년이었다. 참여자들이 느끼는 경제 상태는 ‘중’ 정도라고 답한 참여자가 2명이었고 대부분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고 있다는 참여자도 2명 있었다. 참여자의 학력은 대졸이 2명, 고졸 4명, 중졸 1명, 초졸 4명이었고, 이들의 직업은 청소년 공장에서 일하는 육체노동직에 포함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참여자가 7명, 학원 강사 2명, 전업주부 2명이었다.

(2) 자료수집

연구자료는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참여자와의 면대면 개별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자별 면담횟수는 2~4회였고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면담장소는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로 정하였으며 참여자의 집이나 공원, 혹은 강이 보이는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초기에는 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하면서 참여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면담 시에는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으며 면담 후에는 현장기록 노트에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특징, 면담의 주요내용과 연구자에게 떠오른 생각이나 질문 사항들을 기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담 즉시 녹음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필사 시 정확히 표현되지 못한 말들은 다음 인터뷰에 다시 묻거나 전화로 그 뜻을 다시 물었으며 인터뷰 시 기록해 놓은 현장기록 노트를 참고하였다.

참여자에게 좀 더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Kvale (1998)이 제시한 도입질문, 후속질문, 엄밀한 조사 질문, 상상하는 질문, 직접적·간접적 질문, 구조적인 질문, 침묵, 해석적인 질문 등 9가지 유형의 질문을 적용하였다.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모국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등의 도입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와 같은 후속질문으로 면담을 이어갔다. 엄밀한 조사 질문은 “남편과 시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첫 임신은 언제 했습니까?”, “임신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임신과 출산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등이었다. “출

산 후 아기를 처음 봤을 때의 상황과 느낌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는 상상질문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직접적 질문으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갔습니까?”, “임신과 출산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등을 사용하였고 간접적 질문으로는 “임신과 출산 시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를 사용하였다.

구조적인 질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혼이주를 결심하였습니까?”, “시어머니의 산후조리를 따르게끔 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모국에서 임신부에게 그런 음식을 적용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왜 그렇습니까?” 등이었고 참여자들이 격한 감정으로 이야기도중 눈물을 흐리거나 이야기가 중단된 경우 손을 잡아주고 조용히 기다리는 등 침묵의 기법도 적용하였다. 해석적인 질문으로는 “임신과 출산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임신과 출산이 본인의 삶에 가져다준 변화는 무엇입니까?” 등이었다.

5)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

본 연구는 연구과정 동안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와의 면담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등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모든 연구참여자의 진술은 본 연구의 목적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연구결과는 출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문서화된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여자중 일부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가 혹시 외부에 노출되어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를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솔직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었다. 이에 대해 모든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적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을 재확인시키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철회를 받아들이기도 하여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하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시부모와 남편으로 인해 외출과 인터뷰가 제한된 2명의 경우 참여자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구참여자에게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참여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참여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3. 해석학적 현상학적 분석과정

참여자의 임신과 출산을 통한 전환경험의 의미와 본질적인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1) 텍스트 구성

수집한 자료는 녹음 자료 필사, 자료 분류, 목록작성 과정을 거쳐 분석 텍스트로 작성하였다.

필사 작업은 녹음된 테이프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사용한 용어, 발음, 문장을 그대로 기록하고 한숨이나 억양 등은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현장 노트에 기록한 면담 중 참여자의 울음, 침묵, 동작, 표정 등을 녹음 내용 필사본에 삽입하였다. 불명확한 부분은 전화나 다음 면담에서 확인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한 필사본을 참여자 별로 면담 날짜에 따라 분류하였다. 참여자를 대분류로 하고, 면담 날짜를 소분류로 하여 목록 표를 작성하였다.

2) 텍스트 분석과 해석학적 반성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과정에서 세분 법 혹은 추행 법과 선택론적 방법, 전체론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세분 법에 따라 문장 하나하나를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단어, 구, 절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선택론적 분석방법에 따라 각 참여자의 임신과 출산, 전환, 결혼, 이주경험을 표현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어구를 찾아 해당 진술의 의미와 경험의 과정 및 구조를 분석하였다.

전체론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개별 경험들의 의미와 구조 및 과정들을 통합하여 전환 경험의 본질을 찾아내었다.

참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텍스트 분석에서 발견한 의미와 주제를 연구자의 경험, 어원, 문학, 예술작품에서 추적인 결과와 연관 지어 해석하였다.

연구의 질 확보: 참여자들이 경험한 전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개연성이 높은 이해를 얻기 위하여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등의 질적 연구의 엄밀성 확보기준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면담 기록내용과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분석결과가 참여자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적용성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의미를 지닌 진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의미와 본질이 명확하게 도출될 때까지 다단계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또한 복합적인 전환의 차원을 지닌 생의 사건에 대한 경험의 심층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해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관성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서 van Manen 연구방법의 기반을 이루는 실존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van Manen의 절차와 기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중립성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개인적 편견과 선입견, 기존의 지식이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구조와 현상에 대한 선 이해, 가정, 편견 등을 개인일지에 기록하여 자료수집과 분석 및 글쓰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자료로 삼았다.

연구결과

1.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한 전환 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면담자료로부터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한 전환 체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텍스트와 다양한 자료로부터 수집된 주제진술로 여러 번 돌아가 현상학적 반성을 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한 삶의 전환 체험의 본질적 주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혼란과 긴장의 낯선 생활세계에 힘이 없는 이방인으로 놓여짐

참여자들의 결혼 초기 생활은 차이와 차별에 의한 긴장과 혼란의 장이었다. 기존의 삶을 구성해 온 가치와 규범의 틀을 지닌 채 새로운 사회에 진입한 참여자들은 집단 내에 자리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삶을 재구성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혼란과 긴장의 낯선 생활세계에 힘이 없는 이방인으로 놓여졌다.

(1) 현실세계가 기대에 어긋남

참여자들이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생활세계는 기대했던 세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의 결혼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만, 결혼 후 주어진 생활세계는 기존거주자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던 세계이다. 이 새로운 생활세계는 모국의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핵심적인 구성원에서 주어지고 강요당하는 울타리 밖에서 있는 이방인으로 한국에서 주어지는 지위와 역할의 차이, 기대했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제적 차이는 참여자들의 일상에 혼란과 긴장을 가중시켰다.

저는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 나 학교 다닐 때 처음에 작은 동

생 때문에 우리 재산 다 날아갔어요. 중국에서는 아들 한 명 있으면 못 낳아요. 남동생 둘이예요. 작은 동생 낳는데 벌금으로 우리 집에 있는 것 다 가져갔어요. 물건도 가져갔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셋 키우는데 돈 없어서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는데 어머니 아버지 같이 병 생겼어요. 2년 동안 그 때 돈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난했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 소개로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어요. 남편 두 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하늘 저는 땅이에요. 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사람은 하늘 외국 사람은 땅이에요(참여자 7).

2) 새로운 관계망이 부당하게 시작 됨

모국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집단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안을 스스로 선택하는 능동적 결정권자였던 참여자들은 낮은 한국의 생활세계에서 남편, 시부모 그리고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남편 중심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고 시부모로부터는 노동대리인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자신들을 가정부라고 표현하였다. 시부모는 남편을 비롯하여 남편의 형제에게는 베풀고 포용하는 가장 안정된 울타리가 된다. 그러나 이 울타리가 참여자에게는 가족의 동질성을 획득하여 일정한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통제하면서 기존 가족의 틀을 방어하는 장벽으로 느껴졌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는 나 감시했어요. 옛날에 2년인가 감시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디 가는데 남자가 길을 물었어요. 외국남자가 길 물었는데 저는 몰라요. 이 말밖에 모르는데 시어머니가 바람피운다고 해요. 집에 가서 싸웠어요. 시어머니가 미행해요. 시어머니 무슨 남자 만나러 가요? 맨날 바람이나 피웠는가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바람 핀다고 아니 돈이 있으면 나가서 돈 있어 없어 돈 주지 말래요 주지 말라고 바람 피운다고 나가면 안돼요. 일하면 안돼요, 그냥 집에서 있어요, 그래서 난 감옥에서 살았어요. 도련님은 형수님이라고 별로 안 불러요. 나를 식구처럼 대하지 않아요(참여자 7).

참여자들은 이웃을 비롯한 주변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참여자들은 이웃으로부터의 소외도 경험하였다. 친구도 없고 다른 이웃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시집을 왔느냐’는 말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점점 회피하게 되고 급기야 이웃과의 단절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국 아줌마 친구 만나요. 아주머니 이렇게 말해요. 왜 한국남자 결혼해? 한국남자 돈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아휴 나도 모르겠다,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와요. 또 다른 한국아주머니 이렇게 말해. 옆에 아주머니 ‘ㅇㅇ’ 집에 와서 김밥먹자? 아 바빠. 안가요. 우리 애들 놀이터에서 놀면 다른 아이 엄마 얘기 놀지마.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애들 놀지마. 저 알아, 괜찮아.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 잘 몰라요. 잘 몰라.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좋은데 한국 사람이 싫어해(참여자 5).

2. 이주생활이 임신·출산으로 더 힘들어짐

참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은 힘든 이주생활을 더 힘들게 하였다. 임신과 출산에 의한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정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혼란에 빠진 이 이방인을 더 약하게 만들고 더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하였다.

1) 자녀생산의 도구적 존재로 취급 됨

참여자들은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이후에 임신을 하기를 원하지만 시어머니는 직간접적으로 임신과 아들 낳을 것을 강요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강요당하는 참여자들은 시어머니의 기대를 충족하려는 의지보다는 시어머니의 부당함과 사람 이하의 대우를 받는 굴욕감을 더 크게 경험하였으며 임신의 주체자인 참여자 부부의 의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자녀생산의 도구적 존재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애기 안 생기면 아무 쓸데없어요. 시어머니 저런 생각 이예요. 완전히 저를 인정하는데 애기를 낳으면 좋아해요. 이런 말 했어요. 옛날에 집 옆에 누가 누가 도망갔어요. 애기 둘 나서 여기에 남겨놓고 애기 둘이 낳았어도 도망갔어요. 주변에 그런 일이 있어서 더 못 믿어요. 그것도 이해하는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는 동물 같아요(참여자 7).

참여자들은 시부모로부터 아들 낳을 것을 강요받고 한국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문학작품에서도 한국여성, 특히 시모와 시조모의 남아선호사상은 임신한 며느리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Yang (2003)의 『청어이야기』와 Park (2002)의 『엄마 없어서 슬펐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남아선호사상은 시어머니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편과 가족 모두가 포함되어 있

다. 이보연(2006)의 『사랑이 서툰 엄마 사랑이 고픈 아이』에서는 시대의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임신 기간 내내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임부의 고통을 잘 묘사하고 있다.

남편이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낳으면 남자 나와야 하는데 딸이 나오니까 울고 기분 좋은 것 아니더라고 좋아서 우는 줄 알았는데. 또 둘째 아들 낳으니까 기분이 좋고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고추 조금 모여서 확인하라고 남자인지. 장남이니까 아들 안 낳으면 큰일이라고 말해요. 한국에서 아들만 좋아하는데 큰 애는 꼭 아들 낳아야 하잖아요. 아들이 제사 지내니까 그거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참여자 10).

참여자들은 임신초기에 힘든 가사노동과 극심한 입덧을 경험하였으나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은 가족으로 인해 임신 부로서 대우받지 못하였다고 느꼈고 한국사회로 이주하여 일상의 식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덧이 부가되어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로 임신 초기를 지내게 되었다.

Chae (2002)은 소설 『탁류(하)』에서 입덧을 비롯한 임부의 생리적 변화에 의한 고통과 입덧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묘사하고 있다. Gong (1994)의 소설 『오지리에 두고 온 서툰 살』에서는 임신과 출산은 누군가의 도움 또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참여자 10은 입덧이라는 생리적인 현상과 식문화의 차이가 증폭됨으로써 익숙했던 고국의 음식에 대한 선호가 임신을 통해서 강화되었음을 진술하였다. Kim (1992)의 수필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에서도 외국에서 입덧으로 고생하면서 고국음식을 갈망하고 고국을 그리워하던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만약에 태국에서 임신했을 때 남편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사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 답답해서 태국음식 많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태국식당이 있었는데 남편보고 가자고 그랬는데 안 데려가요. 처음 입덧부터 애기 태어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데려 갔어요. 먹고 싶은 것 못 먹었어요. 그런데 나는 먹고 싶었지만 안 사줘서 참았어요. 꿈속에서 먹었어요 (참여자 10).

참여자들은 자녀로 인해 기쁨을 맛보고 든든한 내편을 얻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지만 문화가 다른 산후음식과 산후조리의 어려움도 진술하였다. 산후음식과 건강관리방법과 금기는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생태학적 환경에 영향

을 받게 되므로 나라마다 독특하게 구성된다. 생태학적 사회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참여자들이 산후 음식과 한국의 산후조리 풍습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산후 음식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Kim (1992)는 수필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에서 고국을 떠난 낯선 땅에서의 출산을 겪은 후 고국의 음식을 잊지 못해 그리워함을 묘사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애기 나서도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먹고 여기와 태국은 다르잖아요. 여기는 미역국만 먹고 태국음식 먹고 싶었어요. 태국 식으로 하고 싶은데 안돼요. 냄새나고 싫었지만 그래도 애 위해서 젓 먹어야 하잖아요. 태국 음식 먹고 싶었는데 그 때 할 수 없으니까 (참여자 10).

맨 처음에는 젓이 잘 안 나와서 족발을 돼지 족발을 삶은 물이 좋다고 해서 삶아줬는데 그건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기름기가 많아서 먹으라고 해서 입에 댔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오. 애 낳는 것도 힘들었는데 먹는 것도 힘들고 눈치도 보이고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진짜 죄송한 이야기인데 진짜 정성스럽게 해주 시는데 안 먹어 봐서 안 맞는 거예요. 난생처음 접하는 음식이라서 (참여자 11).

2)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 두려움

참여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두렵다고 표현하였다. 여성에게 임신은 그 자체로 신비한 경외의 사건이며 몸 안에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느낌을 Kim (2000)의 『국화꽃 향기』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감정으로 임신 이후 자신이 맛보게 될 다양한 기대까지 여성만이 갖는 잉태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생활환경과 남편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낯선 세계에서의 적응을 더 어렵게 하는 위협적인 생활사건으로 인식되었으며 정보와 자원부족에 의한 임신, 출산, 양육의 성공여부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축복이라기보다는 무섭고 두려운 일로 인식하였으며 임신을 지옥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만약에 임신할 것 같다, 어떻게 할까?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무섭잖아. 만약에 임신하면 한국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데 벌써하면 안되잖아 임신하면 가톨릭은 애들 죽이면 안되잖아. 그래서 당신 알아서 해. 나는 몰라. 그런데 임신했잖아. 5월에 와서 7월에 임신했잖아. 그래서 무서웠잖아. 죽일 수 없잖아. 그때 어휴 무서워 임신 (참여자 3).

신랑도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아버님이 임신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지옥 같았어. 저는 바로 와서 세 네 달 후에 바로 임신했어요. 이렇게 빨리 갖을 거 생각도 못했고 제가 할 일이 좀 많고 그래서 너무 한국도 모르고 조금 익숙해지면 낳을까 조금 있다 낳고 싶어서 (참여자 8).

3) 건강전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함

참여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이 되고 그에 따라 대처할 만한 지식을 갖지 못해 도움이 필요했으나 마땅히 조언을 구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제공된 자원마저도 그 경로를 알지 못해 이용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어렵게 찾아가는 의료기관에서는 언어장벽으로 인해 건강전문인의 설명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기도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근데 의사가 밥 많이 먹어야지, 그래야 애기 건강하지 말 하면은 그래도 많이 먹었을 텐데 애기 안했잖아요. 말했으면 잘 먹었을 텐데 애기 때문에 먹어 이야기 하는 것도 의사선생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임신 했을 때 병 같은 것은 없었고 그런데 그냥 나 많이 말랐어요, 나 많이 말랐어요, 옛날에는 45 kg 지금은 52 kg예요. 임신해서 못 먹어서 더 말랐어요. 애 낳을때 괴로워. 조금 가까운데 근데 배가 아프면은 진짜 아프잖아요. 2월 3월 우리 딸은 2월 낳았어. 힘들었죠. 개인병원에서 얼마만큼 아프면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참여자 4).

3. 아이의 탄생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됨

참여자들에게 아이의 탄생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이의 탄생으로 한 개체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에 자녀를 포함하여 모성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며 모성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기쁨이외에 아기를 통해 가족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가족적 지위가 상승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또한 지나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아들을 낳았을 때는 지위 상승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

1) 모성을 발견함

참여자들은 자녀의 출산으로 기쁨을 맛보았으며 혈연인 자식을 얻음으로 든든해졌다고 진술하였다. 자녀 출산에서 처음 느끼는 기쁨, 감사, 신비로움 등은 모성을 자각하면서 발견하는 원초적인 쾌정서이다. 이 기쁨은 그동안의 불안

정했던 정서를 안정시키고 임신과 출산에 의한 신체적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출산 직후 자녀들을 보면서 일차적으로 생명자체에 대한 경의를 느끼고 지원 자원으로서의 자녀의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었다고 표현하였다. 이 든든한 지원 자원은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각종의 고통을 극복하는 힘을 제공하였으며 자식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때는 그냥 뭐 이뻐요. 애기가 너무 신기하고 하루 종일 애기랑 같이 있어도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았어요. 엄마가 느낌은 잘 모르지만 아~ 예. 애기 낳고 나서는 처음의 불안감이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된다는 것이 기뻐요. 저희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고생해서 애기 낳아서 고생해서 그냥 떨어진 것 같았어요.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너무 기뻐요 (참여자 8).

엄마 된다고 같이 있으니까 실감나고 나중에 크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든든하고 잘 키워야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아이 보면서 참았어요 (참여자 2).

2) 가족의 중요구성원으로 인정받음

참여자들은 아이의 탄생으로 집안의 대를 이어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가정의 안주인으로서의 경제권도 주어졌으며 비로소 가족의 중요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됨을 실감하였고 기득권자들의 섬에 고립된 참여자의 입지에서 출산으로 또 하나의 내편을 얻게 된 것은 일차적인 모성에 대한 기쁨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아들을 낳았을 때는 지위 상승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고 진술하였다. “첫 애 낳고 나면 평양감사도 돌아본다.”는 속담내용이 나타내 주듯 출산한 여성은 평양감사의 관심 대상이 될 정도로 귀한 신분으로 지위가 상승된다는 의미를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아들 낳고 우리 어머니 좋아했잖아요. 우리 남편 집 안동인데 큰 아들인데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애 낳아 가지고 시댁에 먼저 갔을 때 와가지고 얼마 안될 때 왔다하면서 애기 왔다고 하면서 마을어른들이 다 와가지고 음식을 진짜 잔치식으로 먹었고 너무 환영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좀 강해요 (참여자 11).

참여자들은 출산으로 실질적인 가족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가정의 안주인이 되었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에게 경제권이 주어져 있었지만 출산한 후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생의 반려자인 남편으로부터 아내로서의 대접을 받게 됨을 인식하였다. 가족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참여자들이 가족 경제권을 이양 받는 시기, 범위 및 경제권 행사 방법은 다르지만 출산은 가족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된 지위를 차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처음에 아버님 돈 관리 다했어요. 나중에 큰애 낳고 은행에 아버님이 같이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어요. 아버님이 많이 아파서 저 혼자해요 (참여자 9).

돈은 남편이 애기 낳고 줬어요. 살림하는 돈. 처음에는 안 줬어요. 도망갈까봐 안 줬나봐요. 애기 낳으니까 안 도망가니까 줬어요. 나중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다해요. 학원비, 반찬, 세금 등. 이제 믿는거지요 (참여자 10).

4. 가족 내 주체자로의 힘이 생김

참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 자녀를 얻음으로써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찾아가고 가족 내의 주체자로서 힘이 생겼음을 진술하였다. 이 힘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은 아이들을 당당하게 키우고 싶어 하였으며 아이를 포함하여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고자하는 의지가 강해졌다고 진술하였다.

1) 아이들을 당당하게 키우고 싶어 함

참여자들은 출산을 통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으며 아이들을 당당하게 키우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모국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싶어 하였다. 출산은 참여자에게 엄마라는 생득적 지위를 주었으며 모성의 본능과 더불어 어머니의 의무와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가족의 주체자로서 자리를 찾아갔다. 참여자들은 자녀를 한국에서 한국의 아이들로 키워야겠다는 인식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가정교육을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한편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녀를 위해 학교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여 자녀교육의 주체자로서의 자리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였다.

자모회 그런 거 있는데 내가 봤는데 사람들은 나만 보고, 얼굴 틀리니까. 아니요, 여기 있으니까 외국사람 외국 엄마없으니까, 한 두 명? 세 명? (애들 영어)옛날에 가르켜 줬어요. 제가 옛날에

나가서 어린이집에서 가르쳤어요. 가르켜 주는데 지금도 우리 같이 있잖아 그 성당에서 주일학교 봉사 있어. 같이 다녀요. 그래서 한국 언니들이 너무 너무 좋아요. 아, 나 항상 기도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애기들 대학교 좋은데 가고. 그런 생각 있어요. 잘 키워야고 잘 학교 보내야고 그리고 건강하고 (참여자 4).

2)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고자하는 의지가 강해짐

참여자들은 아이의 탄생으로 아이를 포함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음을 인식하였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살았으나 임신, 그리고 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었음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출산 후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였으나 올 수 없는 친정어머니를 대신해 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난 후 시가족과의 관계가 편안해짐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는 시어머니의 통제와 감시대상에서 관심과 도움의 대상이 되었다. 때로는 자녀를 둘러싸고 시어머니와 경쟁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엄격한 고부관계의 위계는 약화되고 일반적인 가족관계에서의 애정과 갈등의 표현인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가는 단계가 되고 있으며, 참여자 역시 시부모나 가족의 특성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기존 구성원이었던 가족을 이해하고 품어 안는 포용적인 가족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아가서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라고 여길 정도로 참여자 자신들의 변화된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신분안정을 위해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은 마음도 표현하였다.

애기 8개월에 낳았을 때 무서웠어요. 수술 애기 위험해서(다니) 산부인과 수술 안 해요. 대학병원으로 가 해서 갔어요. 앰블런스 타고 남편이랑 갔어요. 그 때 무서웠어요. 왜 나 수술해? 여기 누워, 수술해, 손 막... 많이 무서워, 눈물 많이 나왔어요. 저는 친정엄마 없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돌아가신지 한 6년되었어요. 엄마 죽고 1년 있다가 집에 갔다 왔어요. 시어머니가 괜찮아, 괜찮아 시어머니 있어 해서 괜찮았어요. 마음이 놓였어요 (참여자 9).

저 국적 있어요. 애들 위해서. 애들하고 같이 가면 너 애네들한테 파출부냐? 그래요 “아니 내 자식이야”라고 해요. 친구들이 어떨 땐 억울해요. 다행 건 하나도 없대구. 근데 잘 됐구나 생각해요. 놀리는 사람 없으니까. 애들하고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얼굴은 다르지만 (참여자 2).

(1)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한 삶의 전

환 체험은 혼란과 긴장의 낮은 생활세계에 힘이 없는 이방인의 위치에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이주생활을 더 힘들게 하였지만 아이의 탄생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고 힘의 원천인 자식을 얻음으로써 우리사회의 주체자로서 살고 싶어 하는 강력한 힘이 생김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참여자들은 초기 결혼 생활에서 차이와 차별에 의한 혼란과 긴장의 낮은 생활세계에 힘이 없는 이방인으로 놓여지는 경험을 하였다. 기존의 삶을 구성해 온 가치와 규범의 틀을 지닌 채 새로운 사회에 진입한 사회에서 구성된 가족 내에서는 간단한 의사결정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주변구성원의 존재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친정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과 안정된 생활을 찾아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으나 기대했던 결혼이 아님을 알고 실망하게 되었다. 결혼은 모국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빈곤한 모국 가족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물질적 풍요를 모국가족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상태가 참여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남편과 시부모는 모국가족과 이를 나누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낮은 한국의 생활세계에서 남편, 시부모 그리고 이웃과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망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의견은 무시된 채 남편 중심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시부모로부터는 가족구성원으로서가 아닌 노동대리인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주변 이웃에게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편은 행동의 틀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부부갈등을 심화시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경제권은 극히 제한되어 소액의 경제적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이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꼭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싶을 때조차도 돈이 없어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웃으로부터 자신들의 경제력을 무시하고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물건값, 노동력에 대한 보수의 차이, 인간관계 등에서 느끼는 차별은 견디기 힘들었다.

임신과 출산에 의한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정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혼란에 빠진 이 이방인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힘든 이주생활을 더 힘들게 하였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임신과 출산은 최고의 여성적인 창조행위로 간주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에 임신부는 그 사회에서 마땅히 보호와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러나 시어머니로부터의 직접적이고 집요한 임신 강요와 아들 낳을 것을 강요받는 참여자들은 자녀 생산의 도구로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들은 낮은 타국에서 대부분 한국식 산후조리를 하게 되나 산후음식과 건강관리방법, 금기 사항들은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생태학적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나라마다 독특하게 구성되는 산물인바 생태학적 사회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참여자들이 산후 음식과 한국의 산후조리 풍습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건강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방법을 알지 못했고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산전 관리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새로운 도움을 구하기보다 자신보다 먼저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한 모국의 다른 결혼이주 여성에게서 경험을 나누고 대처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임신과 출산은 한편으로는 주류집단과의 끈을 이어주는 계기가 되어 고립의 벽을 유연하게 만들고 어머니로서, 가족공동체로서, 그리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아이의 탄생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모든 방어의 수단과 권력이 남성에게 주어지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보호책이자 권한인 임신과 출산은 비록 신체적인 고통을 수반하지만 사실적인 몸의 체험을 통해 획득된 모성은 긴장과 혼란의 현실 속에서 생존의 근거로 작용하며 자연스럽게 모성애로 승화하였다. 막상 출산해서 엄마가 되었다는 기쁨은 그 동안의 고생을 잊게 하였다.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자신의 나라 언어로 말할 수 있고, 외롭지 않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예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기분과 환희도 맛보았으며 혈연인 자식을 얻어 든든해짐을 느꼈다.

집안에서는 아이의 탄생으로 집안의 대를 이어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가정의 안주인으로서의 경제권도 주어졌으며 비로소 가족의 중요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됨을 실감하였다.

참여자들은 모성의 본능과 더불어 어머니의 의무와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이 사회의 주체자로서 자리를 찾아갔다.

참여자들은 자녀가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한편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모국의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 선택한 결혼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생활이 안정되어갈수록 예전에

능동적이었던 모국에서의 생활을 회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를 자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희망은 그 동안 상실되었던 자존감의 회복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아이의 탄생으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음을 인식하였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살았으나 임신, 그리고 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시가족과의 관계가 편안해짐을 느꼈으며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라고 여길 정도로 자신들의 변화된 마음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보다 안정된 신분을 부여받기 위해 국적을 취득하였다. 국적이 없는 불안정한 지위는 가족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에 장애가 된다는 생각에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자녀의 보호막이 되고자 하였으며 안정된 직업을 갖고자 하였다.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새로운 생활세계에서의 일상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의 초기 정착기 삶은 기존의 생활세계와 새로운 생활세계의 이질성과 차별을 극복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몸을 비롯하여, 시간, 공간, 관계를 확장을 통해 삶의 주체자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이방인에서 삶이 주체자로 전환이 시작되는 결혼 초기에 맞이하게 되는 가정 내 그리고 주변사회에서 고조되는 긴장과 가중되는 혼란 속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이들의 이국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임신과 출산은 혈연과 지연을 매개로 가족과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집단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남성중심의 가족집단의 경계를 넘어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필수조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언어, 관습, 가치와 행동 패턴,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임신 초기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출산을 통해 모성 성을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되며, 임신과 출산을 통해 얻어지는 혈연관계는 가장의 아내이자 삶의 동반자로서, 자녀의 어머니이자 가족 공동체의 중요 일원으로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참여자들은 결혼-이주-임신-출산의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통제와 고립의 대상에서 삶의 주체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게 되었다.

결 론

본 연구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결혼이주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 체험하는 삶의

전환의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밴 매넨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삶의 전환 체험의 본질적 주제는 ‘혼란과 긴장의 낯선 생활세계에 힘이 없는 이방인으로 놓여 짐,’ ‘이주 생활은 임신·출산으로 더 힘들어짐,’ ‘아이의 탄생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됨,’ ‘가족 내 주체자로서의 힘이 생김’ 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의 초기 결혼생활은 시 가족 내 주변구성원으로 전락하거나 경제여건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 차이와 차별에 의한 새로운 생활세계의 장벽에 고립되고 언어장벽에 부딪치는 등 새로운 세계의 힘이 없는 이방인의 위치에서 낯선 생활세계에 대한 혼란과 긴장의 극대화를 경험하였다.

임신과 출산은 참여자들의 이주생활을 더 힘들게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가해지는 임신강요, 아들선호, 임신부로서 부당한 대우는 스스로를 자녀생산의 도구로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신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었으며 언어소통의 부족으로 건강전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산전, 산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녀의 탄생으로 맛보는 기쁨은 이러한 고통을 잊게 하였다.

아이의 탄생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아이는 참여자-자녀-남편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구성해 주고 시가족, 이웃과의 안정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자녀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표현하였고 가족 내 주체자로 힘이 생겼음을 기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한 삶의 전환 체험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건강정책 개발에 있어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연계성 구축과 간호의 전문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 여성의 임신·출산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문제에 대한 체험을 연구함으로써 체험의 본질을 탐색하고 결혼이주 여성에 관한 간호이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주 여성의 학력, 지식정도에 맞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임신과 출산, 산전 및 산후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간호이론이 다문화

사회에 맞는 간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정규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REFERENCES

- An, S. Y. (2008).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 female immigrants in Korea*.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Chae, M. S. (1999). *A muddy stream*. Seoul: Munhaksasangsa.
- Chung, J. Y. (2008). A study on factors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migrant women from Vietnam who got married to Koreans -Focusing on the family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women-, *Student Journal of Social Welfare, 1*, 228-262.
- Gong, S. O. (1994). *Bloom the narcissus*. Seoul: Changbi Publishers.
- Ha, J. O. (2007). *The other side paradise*. Seoul: Munhakdongne.
- Han, K. O. (2004). Feminization of migration and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3rd Anniversary Symposium Kit*, 1-16.
- Han, K. O. (2005). Globalization and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realities and challenges of foreign migrant women in Korea. *Women Migrant Humanrights Center*, 1-28.
- Kim, H. I. (2000). *The scent of chrysanthemum*. Seoul: Thicking Tree Publishers.
- Kim, J. H., & Park, O. I. (2008). Comparative analysis on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between rural and urban immigrated women. *Rural Communities 18*(1), 127-160.
- Kim, O. N. (200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Y. H. (1992). *The woman who makes a child well*. Seoul: Design house.
- Kvale, S. (1998). *Interview* (K. R. Shin, Trans.). Seoul: Hyunmun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Lee, B. Y. (2006). *Clumsy love mom and children want to be loved*. Seoul: Aulbook.
- Lee, Y. S. (2008). *A study on the causes that affect marriage immigrant couples confli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Lincoln, Y. S., &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 & Bass Publication.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Multi-cultural family at each life stage individualized supporting countermeasures presentation source book.
- Morse, J. M., & Field, P.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2nd ed.). London: Chapman & Hall.
- Park, E. J. (2007). *Inter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on,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Park, M. R., Kim, M. R., Park, M. H., Ryu, S. R., Sim, H. R., Wang, I. S., et al. (2002). *There was not a mom and from it was sad?* Seoul: If.
- Pyo, H. Y. (2004).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have an influence on satisfactory degree of marriage shown in the mixed couple's home*. Seonam University, Namwon.
- Seo, Y. J. (2004). Actual life's condition and welfare needs of foreign house wives, local area of Gangwon-do, Announced paper of the forum for Woman's Policy.
- Seol, D. H., Kim, Y. T., Kim, H. M., Yun, H. S., Lee, H. K., Lym, K. T., et al. (2005).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intermarried immigrant women and health and welfare support policy measur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Statistical data about Marriage.
- The Korean Language Society. (1992). *The urinal grand dictionary*. Seoul: Eomungak.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999). *Korea language dictionary*. Seoul: Dusan Dong A.
- Van Manen, M. (200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K. R. Shin, Trans.). Seoul: Hyunmun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Yang, J. H. (2005). *A study on the discrimination and the violence experiences of foreign migrant wome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nam University, Changwon.
- Yang, S. M. (2006). Adjustment and an aspect of family life of the rural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focusing on the Chinese (Korea tribe), Japanese, and Philippine immigrant woman and their's husband. *Rural communities, 16* (2), 151-178.
- Yang, W. S. (2003). *A shade story*. Seoul: Jeongeun munwhasa.
- Yoon, H. S. (2003). Conflicts and adjustments of foreign wives married to Korean men -Phillipina wives in rural Korea-. *Region History and Region Culture, 8*(2), 299-339.
- Yoo, J. K. (1973). *The letter explantation dictionary*. Seoul: Nongkyoung.